

계시록 19장

예수의 지상 재림

계시록 19:1-4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앞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19:1-4)

“그 연기”에서 “그”는 벌을 받은 음녀를 가리킨다.

교회는 하늘에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사법 제도는 많이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법원의 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의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엇갈리는 증언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때는 그 모든 세세한 일들과 모든 마음의 동기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이다.

계시록 19:5-8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19:5-6)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고, 재앙이 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결과와 열매를 보는 것일 뿐이다. 곤경에 처하여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부르짖으며 의아해 한다.

그러나 심판날이 이르면,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영광의 찬양을 외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뇌성과도 같을 것이며, 또는 힘찬 폭포 소리와도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19:7)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아내는 교회이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19:8)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의를 가리킨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룬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계시록 19:9-10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19:9-10)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시작하고 있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다.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의로 웃입고 그분께 영접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압도되어 있다. 천사가 이러한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요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자, 요한은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한다. “이봐, 일어서라구! 나도 너와 똑같아. 나도 종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해.” 그러면서 이렇게 단언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구약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요5:39)이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며 정수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셨다(히10:7). 대언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대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성령의 사역과 임무는 사람이 아닌 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참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영이다.

계시록 19:11-15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19:11)

마라나타! 주의 임하심이 실현된다. 1:5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3:14)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의로운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행하실 것이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19:12-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5, 11-14)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인 면류관이 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19:14)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3:4)고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19:1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다(히4:12).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1:3).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헬라어로 ‘다스린다’는 말은 ‘양을 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가 친히 저희를 돌보시며”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그분의 통치 특성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10:14-15). 또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 2). 예수님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철장으로 지키신다.

계시록 19:16-21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19:16-21)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이 세상의 임금들을 쓰기도 골짜기로 모아, 하나님과 이 모든 백성들로 더불어 마지막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그들은 멸하게 된다.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그분의 발을 놓으실 것이다. 그분이 감람산 위에 발을 올려 놓으시면 그 산은 가운데가 갈려져서 새로운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큰 돌로 봉해져 있는 동문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언하기를 그 문은 닫혀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다. 그 문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 그 문 현관에서 음식을 드실 것이다.(겔44:1-3)

짐승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말할 것이다(13:4). 그러나 오직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주 가운데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다. 주님의 재림시에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폐하여진다.(살후2:8)

“유황불 붙는 못”은 성경에서 지옥(Gehenna)이라고도 묘사하는 유황이 타는 불못을 의미한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멸하실 것이다.